

★ 중앙교회 구역 모임(20-21) ★

※ 교제와 축복 / ‘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’

※ 모임을 위한 기도 / 대표 기도자

※ 경배와 찬양 / 327장 주님 주실 화평
221장 주 믿는 형제들

1. 율법의 정신

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.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습니다.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그녀는 빵 값과 우유 값만 지불했습니다. 그런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"아줌마, 그 가방 좀 열어 보세요"라고 말했습니다.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경찰이 왔을 땐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.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법을 만든 사람들이며 법을 잘 알뿐만 아니라 그 법의 뒤에 있는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심문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며, 현재 다섯 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, 집도 절도 없으며,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곤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 주고 연금을 지급 받도록 해주었습니다.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했습니다.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 온 어떤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의 행위를 저지하셨습니다.

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인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연인의 주위 환경을 아셨으며, 그녀가 지금 회개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.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"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"(요 8:11).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.

1)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.

2. 말씀나누기

설교 : 더 나은 의 (마태복음 5:17-20)

1. 율법은 죄를 깨닫고, 예수님께 인도하고 신자를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2. 더 나은 율법이 아닌 더 나은 의인 예수님께 도달하도록 합니다.
3.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.

나눔1.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?(5:17)

나눔2.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십니까?(5:19)

나눔3.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합니까?(5:20)

나눔4. “더 나은 의”는 무엇입니까?

3. 은혜나누기

1)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?

2)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.

3) 중보기도

- (1)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.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,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여 각자의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.
- (2) 담임목사님을 교단 총회장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. 성결교단 및 한국교계를 더욱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(使者)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.
- (3)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회복되게 하시며,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.
- (4)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소서.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.
- (5) 교회창립 114주년 기념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 받는 신임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충성되며 헌신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.
- (6)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: 인도 김광배 강수연
현지에 교회가 개척되도록, 충실한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도록, 선교사 안전과 가족 건강

☎중보기도 핫라인 010-2221-3346

4. 사역나누기

1) 교회사역안내

● **생명운동 캠페인68-5월 “3 GO” / 자세한 사항은 후보 참조**

2) 찬송 /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

3) 헌금

4) 주기도